



예수님과 함께하는

# 성경 이야기 3

글 김순희  
조은옥

이 동화책은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행일** : 2022년 3월 8일

**발해인** : 이동재

**글** : 김순희 / 조은옥

**전체편집** : 이리브가

**그림** : 김하나

**번역** : 이해니 / 이현주 / 조하은

**워십** : 강지인

**찬양** : 최예나 / 백하은 / 이덕근



## 이야기 목차

1. 예수님을 판 가롯유다 1
2. 거짓말 9
3.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17
4.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25
5. 예수님의 재판 33
6.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41
7. 구원 받은 강도 49
8. 예수님의 죽음 57
9. 예수님의 부활 65
10. 나를 만져보라 73
11. 베드로의 고백 81
12. 우리에게 내주신 숙제 89
13.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97
14. 못 걷는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 105
15.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다 113
16. 사울이 바울 되니 121
17. 요한이 천국을 보다 129

# 1.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마태복음 26:47-56, 마가복음 14:43-50,  
누가복음 22:47-53, 요한복음 18:2-12)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어요.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그것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나에게 얼마를 줄 거요?”

“은 삼십을 주겠다.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 말해보아라.”

“그건 내가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겠소.”

가롯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주려고 호시탐탐 엿보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가롯 유다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어요. 유다는 그들과 미리 짚었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잡아가시오.”

유다가 예수께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었어요.

“예수님, 안녕하셨어요?”

“유다야, 너 지금 입맞춤으로 나를 파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너희가 지금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요.”

“나다.”

예수님의 ‘나다.’라는 말씀에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지금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요.”

“그가 나다.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갑자기 베드로가 그들이 갖고 있던 칼을 빼어 한 사람의 귀를 내리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땅에 떨어졌어요. 사람들도, 제자들도,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야, 또! 또! 네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구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어서 칼집에 칼을 꽂아!”

“예수님, 죄송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으이그! 재 유다 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와 함께 다녔던 가롯 유다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데 네가 어찌.....”

예수님은 다친 사람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강도냐?”

“.....”

“내가 매일 성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때는 왜 나를 잡지 않았지?”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은 한 마디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야. 자, 나를 잡아라.”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끌고 갔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무서워서 뿔뿔이 도망갔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4:49)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애들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때는 나도 엄청 행복했어. 매일 사람들 눈에서 하트가 뿜뿜 나왔거든..... 하지만 내가 잡혀가서 십자가를 진 것은 너희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함이었어.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나라고 잡혀가는 것이 무섭지 않았겠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너무 무섭지만 받아들이고 견디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잘 믿도록 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줘. 사랑한다, 내 아들, 딸!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쁜 사람들과 짜고 와서 뽀뽀하는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저라면 절대 못 참아요. 저는요. 베드로 아저씨가 좋아요. 나쁜 사람을 혼내줘서요.  
으이그! 나쁜 사람들 쌤통이에요. 흐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어서 말씀을 잘 들으신 예수님처럼 저도 예수님의 말씀 잘 들을게요.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예수님 믿고 하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할게요. 사랑해용!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2. 거짓말

(마태복음 26:69-75, 마가복음 14:66-72,  
누가복음 22:56-62, 요한복음 18:15-18, 25-27)

“너희가 오늘밤에 모두 다 나를 버릴 거야.”

“네? 예수님.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하며 나를 버릴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저도요. 주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사람들 눈에 띄이지 않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아야겠어. 이렇게 하인들 사이에 끼어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쪼았어요.

대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 눈이 벌개졌어요.

베드로는 그 모습을 숨을 죽이고 비켜보고 있었어요



그 때 여자 하인 하나가 가까이 와서 베드로를 살펴보았어요.

“어?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네. 맞지?”

“뭐라구? 난 아니야!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는 화를 내며 앞뜰로 나갔어요.

날씨가 추워서 뜰에 불을 피워놓았는데 베드로도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아니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맞아.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었어. 낮에 네가 우리 친척의 귀를 칼로 쳤잖아. 그때 분명히 네 얼굴을 봤어.”

“난 아니라구.”

“너의 말소리가 분명히 나사렛 예수와 한 패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확실해!”

“난 아니요. 난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나도 너를 알아. 넌 나사렛 예수와 한 패지?”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난 예수를 몰라.”



“꼬끼오~”

닭이 두 번째 울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화들짝 놀랐어요.

“헉!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이야기 할 거라고. 아~! 난 이제 어찌면 좋아.”

밖으로 뛰쳐나온 베드로는 목 놓아 울었어요.

“엉엉! 주님.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제가 주님 말씀대로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한 제가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주여!”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로 각오했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베드로는 더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 14:72)





## 사랑하는 나의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 항상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아 먼저 챙겨주던 든든한 제자였지. 가끔 급한 성격 때문에 마음보다 행동이 먼저 나와서 나한테 혼나긴 했지만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네 자신도 몰랐지? 보잘 것 없는 여자 하인의 말에 나를 모른다고 할 줄은. 네가 엄청 심하게 울며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걸 알아. 이제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나의 제자답게 나를 따라오리라고 믿어.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저는 진짜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있었어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 드린 것도 진심이었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진심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 드린 것도요.

다시는 거짓말 하지 않을게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게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저의 목숨도 바칠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바보 베드로가



# 3.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요한복음 13:1-20, 31-35)

유월절 전날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서 함께 지냈던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빼앗아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어요.

식사 중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를 잡수시던 식탁에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 식사 하시다말고 왜 일어나세요? 필요한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예수님은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오시더니 허리에 두르셨어요.

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더러워서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씻어주는 거야.”

“그럼 저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게요.”

“저희도 예수님 사랑해요. 저희가 씻어드릴래요.”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예수님! 주께서 어찌 제 발을 씻으세요.”

“베드로야,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돼. 그래도 좋아?”

“아이구, 예수님! 그럼 안 되죠. 예수님, 제 발뿐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요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럼 온몸이 깨끗한 거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들이 깨끗하여졌다.”

“네, 예수님.”

“그러나 모두 다 깨끗해진 것은 아니야.”

“주님! 발만 씻으면 깨끗하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 발을 다 씻어주셨으니 다 깨끗해진 것이 아닌가요?”

“그래. 다 깨끗하지는 않아.....”

예수님은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의 발을 왜 씻어주었는지 알겠어?”

“음~. 예수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희가 나를 뭐라 부르느냐?”

“네? 아~. ‘주’라고도 부르고 ‘선생님’이라고도 불러요.”

“그래 맞다. 내가 너희들의 ‘주’요, ‘선생’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지.”

“주님, 그런데 왜요?”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어 또는 ‘선생’이 되어 발을 씻어주었지?”

“네.”

“내가 한 일을 보고 배우라는 거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할게.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을 수 없어.”

“네,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선생님인데도 낮은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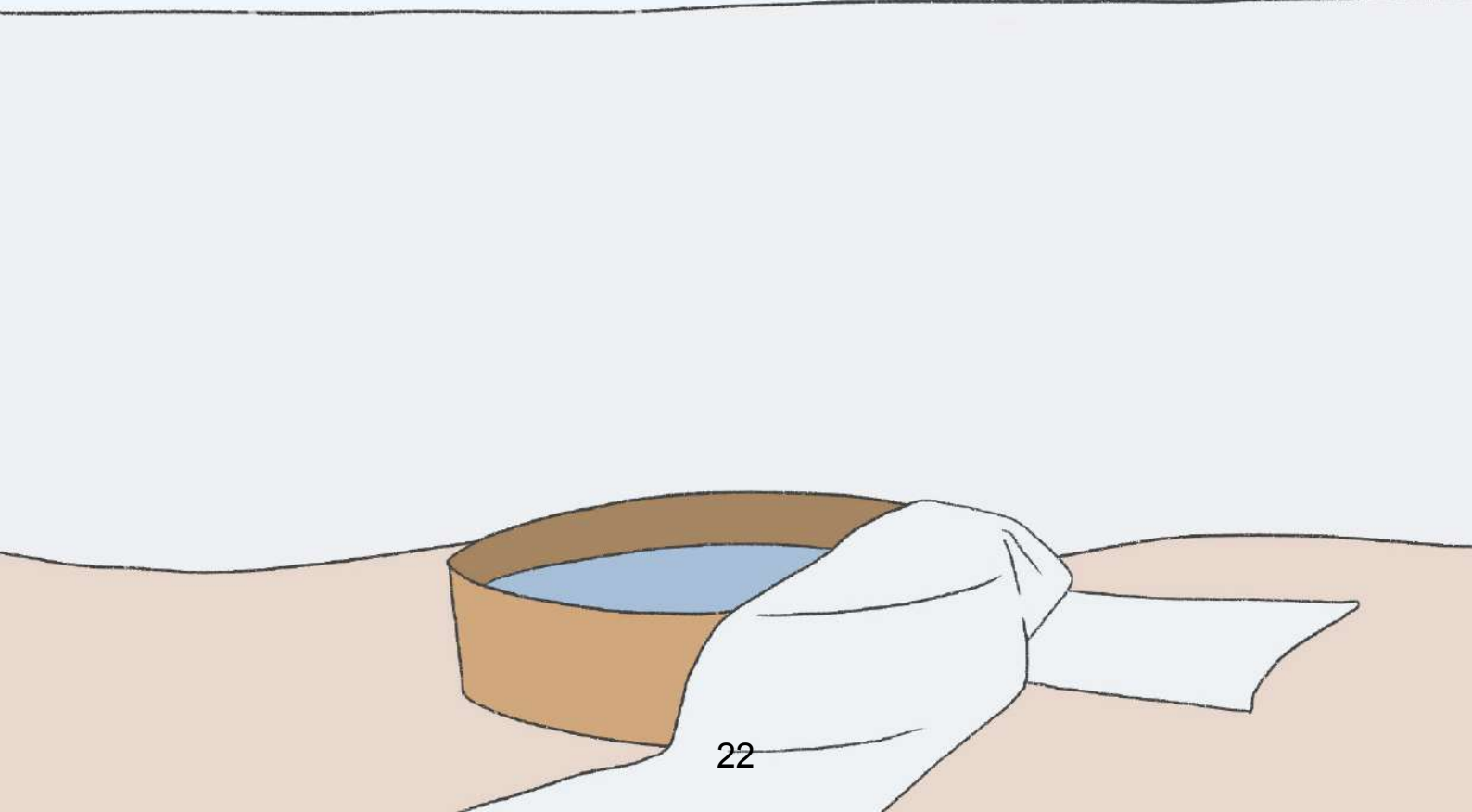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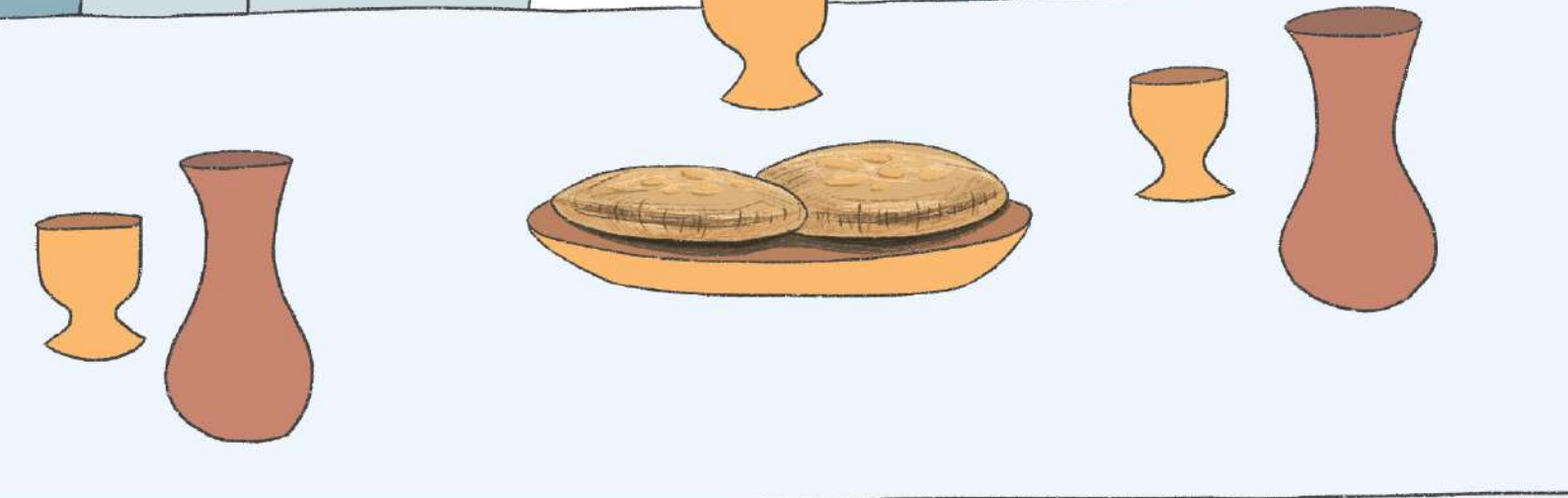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사랑으로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도록 해.”

“네, 주님. 주님의 말씀 잘 알고 실천할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한복음 13:34-35)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돼. 그래서 어느 집을 찾아가면 대부분 하인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지. 그렇지 않으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도 해.

제자들은 자신들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제자들의 선생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교회학교에서 세족식하고 왔지?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한 나의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나의 아들, 딸!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는 예수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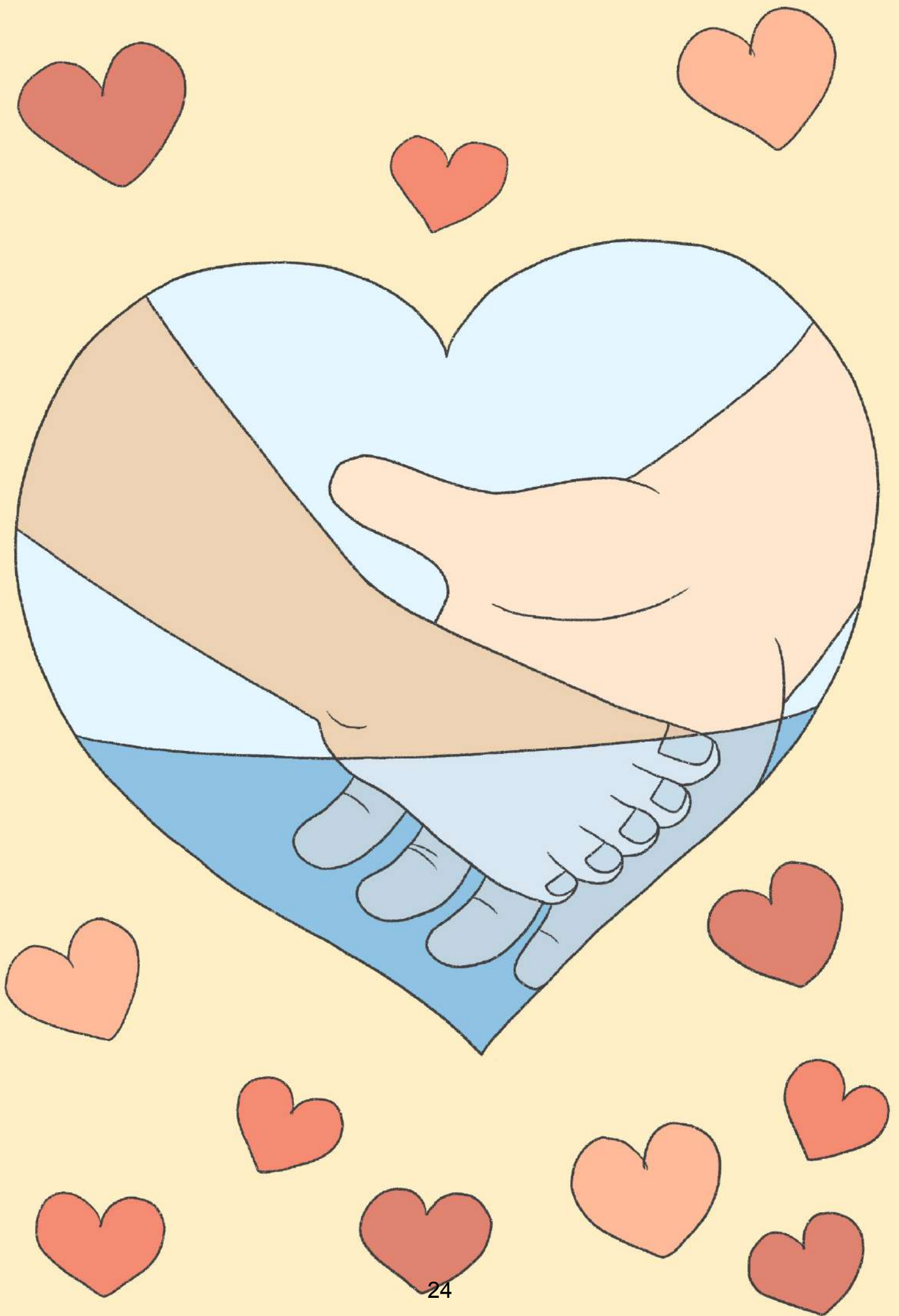
## 사랑하는 예수님께!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이 제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발을 씻어드리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엄마 발을 씻는데 너무 커서 힘들었어요. 처음엔 엄마가 간지럽다고 웃으시더니 나중에 저를 안고 막 우시는 거예요. 엄마가 우니까 저도 눈물이 엄청 났어요. 눈물이 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한 물을 먹은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말하면서 뽀뽀했어요.

저녁에 아빠가 집에 오시면 아빠 발도 씻어드릴 거예요. 헤헤.

예수님, 예수님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4. 예수님과 그의 마지막 식사

(마태복음 26:17-30, 마가복음 14:12-26, 누가복음 22:7-23  
요한복음 13:21-30, 고린도전서 11:23-25)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날이었어요.  
다함께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서로  
의심했어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누워있었어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릿짓을 하며 말했어요.

“야, 요한! 너냐?”

“무슨 소리야? 베드로 그럼 너냐?”

“난 절대 아니지. 그럼 예수님께 니가 여쭙어봐.”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여쭙어보았어요.

“주님!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예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나를 팔 자이다.”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떡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유다에게 바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할 일을 빨리 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고 있었으니까 명절에 쓸 것을 사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만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 예수님께 모두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이다.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쫓쫓.”

그때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지금 네가 너라고 말하였다.”



날이 저물어서 식사할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자, 받아서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떡을 떼어 먹으며 나를 잊지 않도록 해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이다. 잔을 나누어 마시며 나를 잊지 않도록 해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알게 되었어요.  
떡을 떼어 먹고 잔을 나누어 마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임을 알았어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마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갔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린도전서 11:26)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떡은 나의 몸을, 잔은 나의 피를 말하는 것이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잘 명심해주길 바래.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나를 팔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이 몹시 힘든 일이었지만 사실은 그가 불쌍했어.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뺏어버린 거였잖아. 그래서 여러 번 알려주었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떡 조각을 적셔 건네줄 때, 그릇에 함께 손을 넣을 때. 하지만 이미 마귀에게 마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지.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팔리게 되어 있었지만 나의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 슬펐단다.  
그러니 너희들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정신 차리고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교회에서 가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날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만 먹고 나는 못 먹게 해서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어려서 아직 못 먹는대요.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나면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참으려구요.  
예수님,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며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5. 예수님의 재판

(마태복음 27:11-26, 마가복음 15:2-15, 누가복음 23:1-5, 13-25)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총독은 유대나라를 다스리는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그럼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냐?”

“.....”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빌라도는 대답을 하지 않는 예수가 너무 놀라웠어요. 밖에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의 잘못을 이르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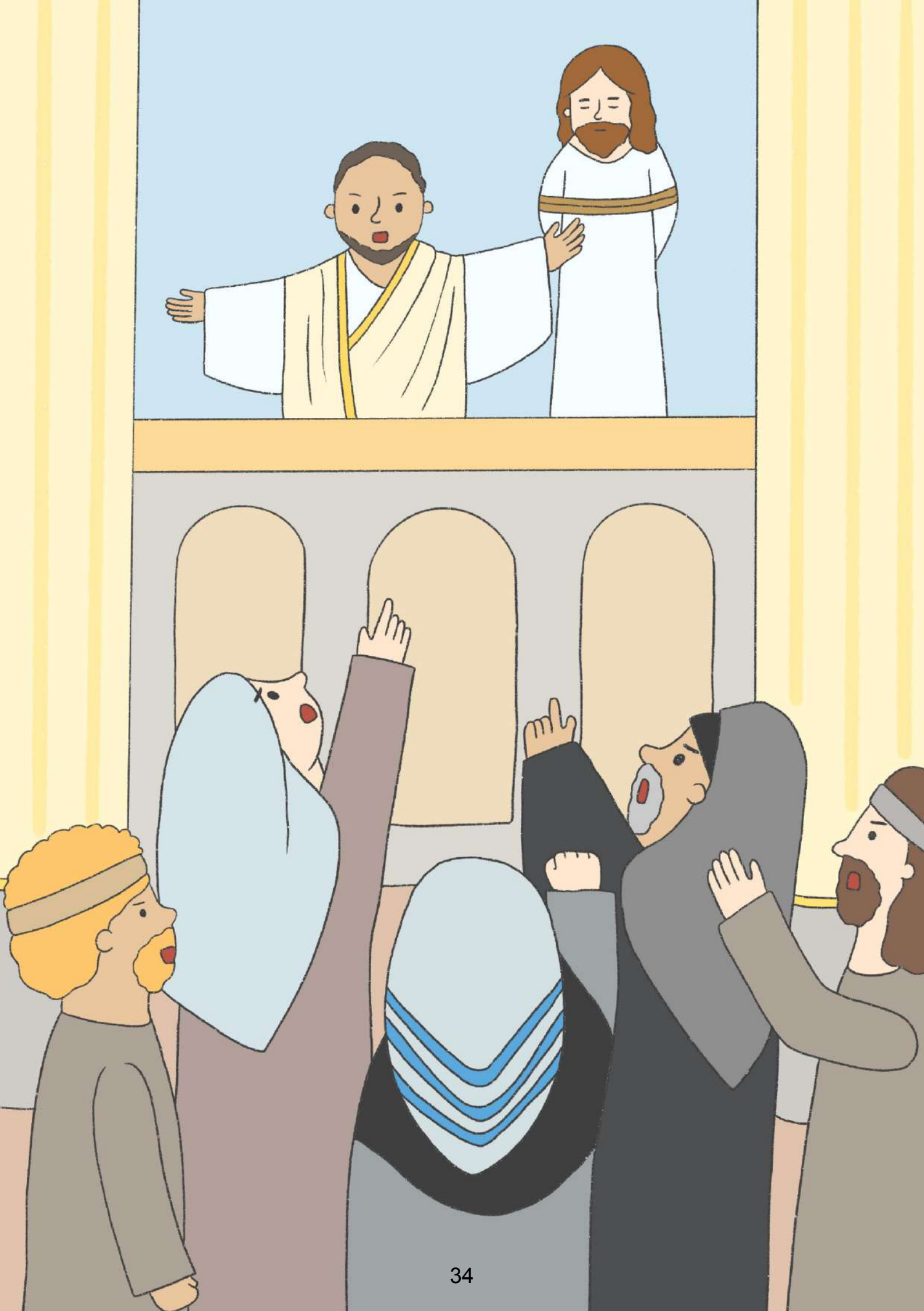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소.”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소.”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 하였소.”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소리쳤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죄를 찾아볼 수 없었어.”



그러나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람은 온 유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몰고 다니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였소.”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샘이 나서 자신에게로 끌고 온 것을 알았어요. 그는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때 마침 명절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법이 있어서 빌라도가 물어보았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풀어주었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를 풀어주소.”

“내가 보기에 예수는 죄가 없다. 바라바는 너희들도 알다시피 아주 잔인한 놈이다.”

“바라바요! 바라바! 바라바를 풀어주소!”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하는 자리에 사람을 보냈어요.

“빌라도여! 어제 밤 꿈에 내가 예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사람들이 계속 “바라바”라고 소리쳐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바라바를 풀어주었어요.

“그럼 이 예수는 어찌하면 좋겠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니, 뭐라구? 예수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우리에게 왕이 없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시 묻겠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소리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웠어요.

물을 가져다 손을 씻으며 말했어요.

“나는 예수의 피에 대하여 죄가 없다. 그 벌은 너희가 당하여라.”

“알겠소. 그 벌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까지도 받을 것이요.”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넘겨주었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8:37)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단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를 따르니까 샘이 났던 거야. 그래서 나쁜 소문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나를 미워하게 만들었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너희들도 착한 친구들을 샘내서 그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봐. 만약 그렇다면 잘못했다고 기도하길 바래.  
사랑해.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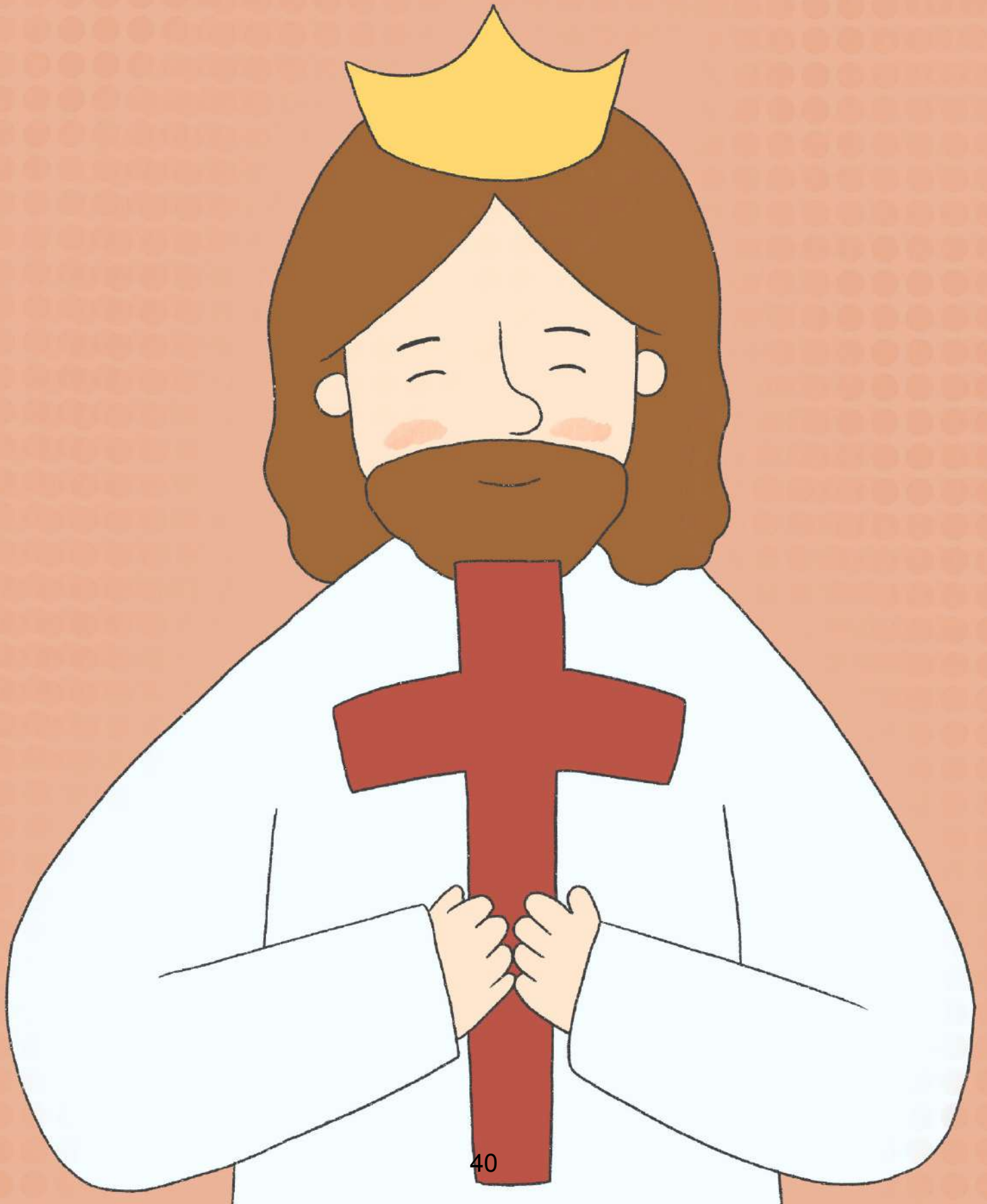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욕하는 게 너무 싫는데 내 친구가 나보고 욕 안하면 바보라고 했어요. 혼자 착한 척 한다고요. 그래서 나보다 블록을 빨리 쌓은 친구한테 큰 소리로 욕했어요.

근데요. 마음이 이상해요.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봐 마음이 더 안 좋았어요.

예수님! 나쁜 마음, 거짓말, 다른 사람 샘내는 것, 미워하는 것 모두 지워버릴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6.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마태복음 22:27-44, 마가복음 15:21-32, 누가복음 23:26-31, 요한복음 19:17-22)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을 했어요.  
민란을 일으키고 살인하여 옥에 갇혀있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러자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총독의 집 안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을 놀려댔어요.

“야야! 예수의 옷을 벗기고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혀!”

“그렇지. 왕이라면 붉은 옷을 입어야지.”

“왕관도 있어야지.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씌우자! 흐흐.”

“그럼 왕들이 드는 금지팡이는 어찌지? 야야! 금지팡이 대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해.”

“크크! 또 뭐를 해드려야 하나?”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절하며 놀려댔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며 마음껏 놀려댔어요.

실컨 조롱한 후 붉은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예수님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어요.  
그때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이 예수의 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이! 거기 너! 이리 와서 예수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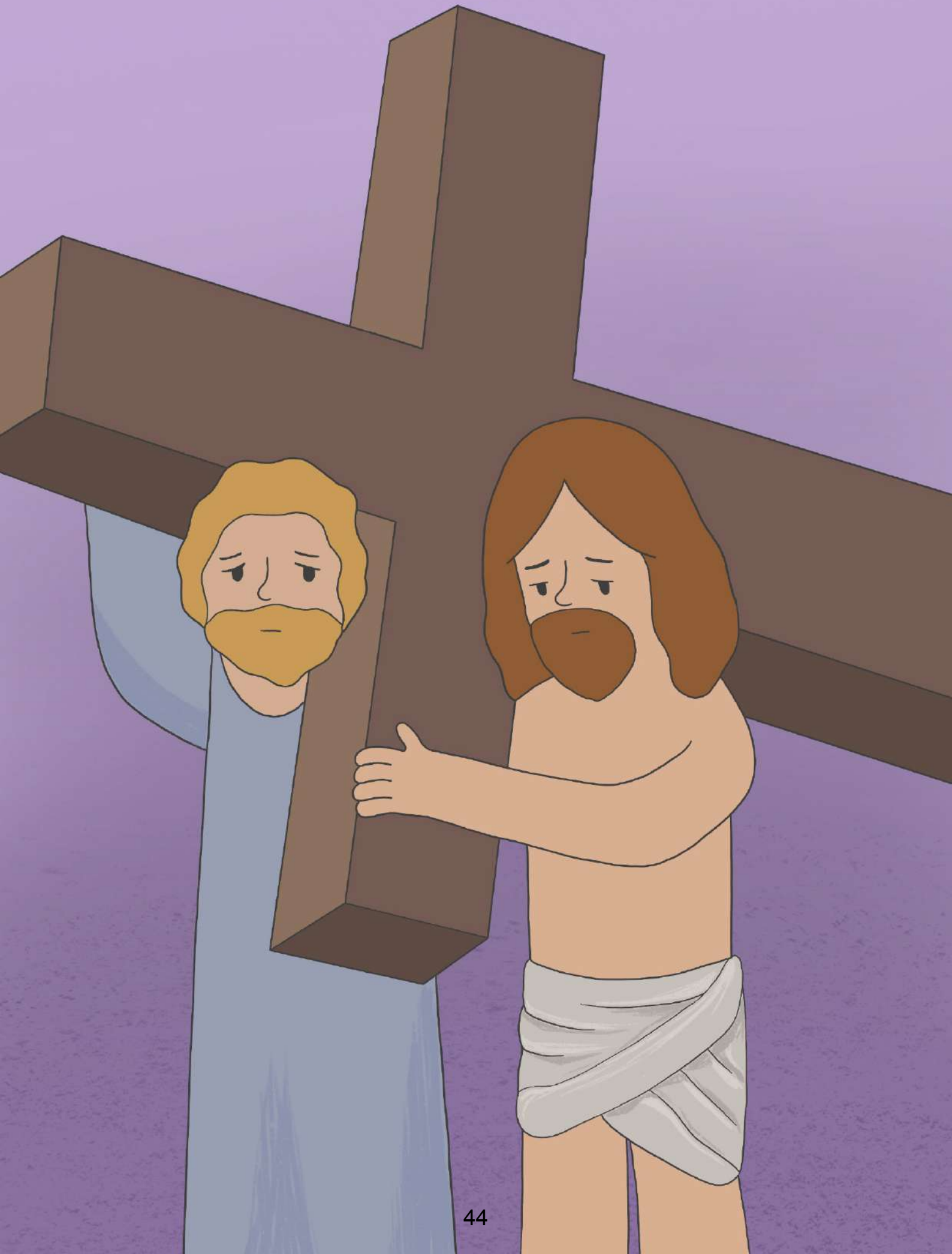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걸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도 따라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푸른 나무와 같은 나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 유대인들이야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예수님이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려 했어요.

“이봐! 유대인의 왕! 이것 좀 마셔!”

포도주를 맛 본 예수님은 마시지 않으셨어요.



“왜 안 마셔? 마셔봐. 쓸개 탄 포도주야. 너의 고통을 덜어줄 텐데.....”

“우리가 생각해서 주는 거야. 어서 마셔!”

그러나 예수님은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시고는 마시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골고다는 성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패를 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유대, 로마, 그리스어로 썼어요.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어요.

“스스로 말하기를 즉,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주소.”  
“내가 쓸 것을 썼으니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시오.”

골고다 언덕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했어요.

“꽁! 꽁!”

“으흑! 으.....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고통을 참으셨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요한복음 19:19)



JESUS NAZARENVS  
REX IVDAEORVM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내가 왜 십자가를 졌을까? 사람들은 왜 진짜 죄인을 풀어주고 죄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 아들인 나를 희생시키신 거야.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지.  
나의 죽음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기도를 통해 용서받게 되었어. 그뿐 아니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올 수 있게 되었단다.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해줘.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너무 슬퍼요. 쓸개 탄 포도주 왜 안 마셨어요?  
그거 마시면 아픈 거 못 느끼게 해준다던데요. 그러면 덜 아프셨을 텐데요.

교회학교 선생님한테도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울먹이면서 대답해주었어요.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면 덜 아프셨겠지만 예수님은 참기 어려운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끝까지 견디어내셨어요. 그 고통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 때문에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오늘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는 내가.

JESUE NAZARENUS  
REX IVDAEORUM



## 7. 구원 받은 강도

(마태복음 27:38-44, 누가복음 23:32-43, 요한복음 19:23-25)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두 명의 악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형을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험악한 군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겹옷을 네 쪽으로 나누어 한 쪽씩 가졌어요. 그리고 속옷도 나누어 가지려고 했어요.

“어! 이 속옷은 꿰맨 부분이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찢네.”

“그러면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갖도록 하자.”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가진 것은 다윗이 구약에서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18)

사람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짓는다고 한 사람이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어서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군인들도 예수님을 비웃으며 놀려댔어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놀리며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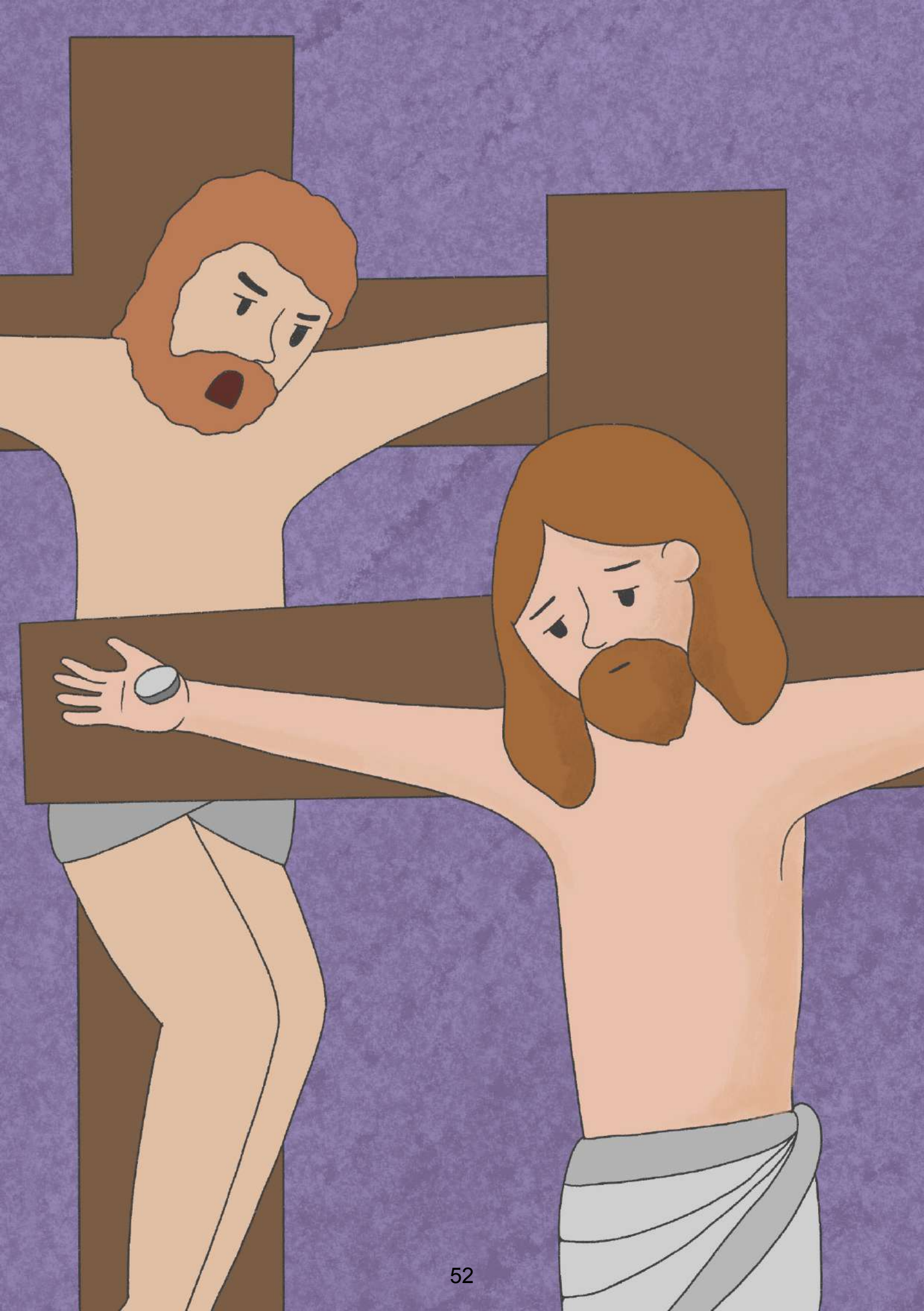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아~ 이스라엘의 왕이 저기 계시네.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믿어줄 테니.”

“맞아. 저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이제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실 거야.”

그때 예수님의 옆에 있던 강도 한 명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욕했어요.

“이봐!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가.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줘. 그래야 우리가 보고 믿지!”



그러자 다른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야! 너는 죄인이면서 예수님을 욕해?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네가 뭔데 잘난 척이야?”

“너와 나는 강도짓을 했으니 십자가의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

“우리보다 더한 죄를 지었겠지.”

“아니야! 예수님이 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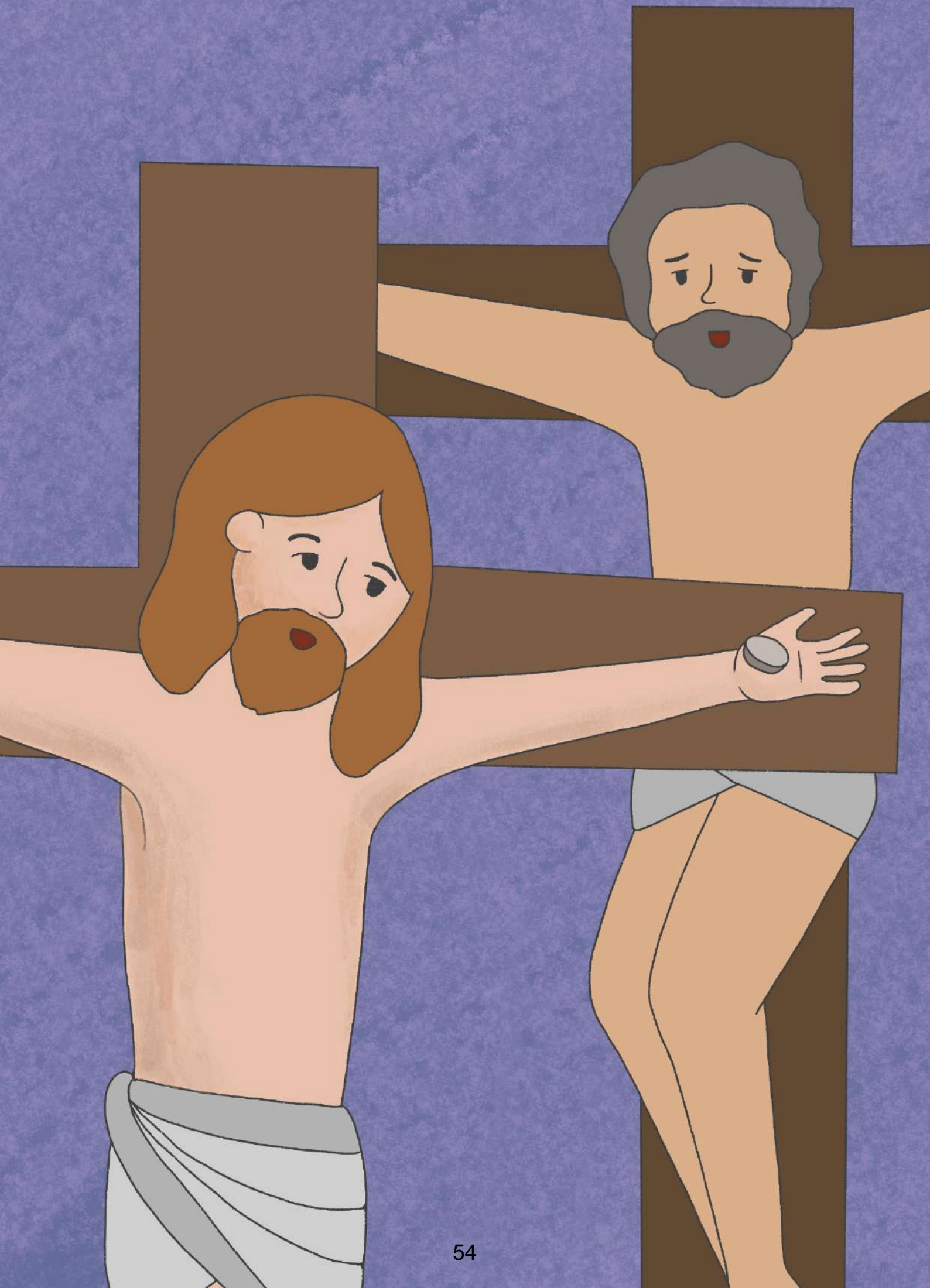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겠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은 강도는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43)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너희들이 두 강도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구나.

같은 시간 같은 곳에 있던 두 강도 중 한 명은 나를 욕하고 흥보아서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어. 다른 한 명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뉘우쳤지. 그리고 나에게 구원시켜 달라고 부탁했어. 나는 그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와 함께 낙원에 가도록 해주었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다보면 잘못하고 죄 지을 수 있어. 그때 그 죄를 나에게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단다.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나의 소원이야.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요 오늘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나빠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좋다고 졸졸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지금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놀려댈 수가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흥 본 강도는 또 왜 그래요? 정말 답답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한 강도는 구원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으니깐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주 많~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8. 예수님의 죽음

(마태복음 27:45-61, 마가복음 15:33-47, 누가복음 23:44-56, 요한복음 19:25-42)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저를 보세요.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제자야, 너의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낮 12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 깜깜해졌어요.

**“대낮인데 날씨가 왜 이러지? 밤처럼 완전히 어둠에 문혔어.”**  
**“온 땅이 어두워졌어.”**

어두운 날이 오후 3시까지도 계속 되었어요. 그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IESUS NAZARENUS  
REX IUDAEORUM

그곳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말했어요.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네.”

다른 한 사람은 솜에 신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어요.

그러자 또 사람들은 비꼬았어요.

“야야! 가만 뒤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예수님은 다시 소리를 크게 지르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자 영혼이 떠나가고 숨지셨어요.  
군인들이 예수에게 와서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흘렀어요.

이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짝 찢어져 둘이  
되었어요.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위가 터졌어요.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백부장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진정한 의인이었어요.”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사람들도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두 보았어요.

그때에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있었어요. 그는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하는 결정에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가 빌라도에게 갔어요.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 모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보았으니 어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누가복음 23:46)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오늘은 너희들에게 성소의 휘장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커튼 같은 막이었는데 천장에서 바닥까지 늘어져있었어. 내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 18미터나 되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야.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은 또 거짓이라고 했겠지.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휘장을 찢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하면 돼.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오늘 교회학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에 대해 배웠어요. 어렵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둘게요.

1.“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2.“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4.“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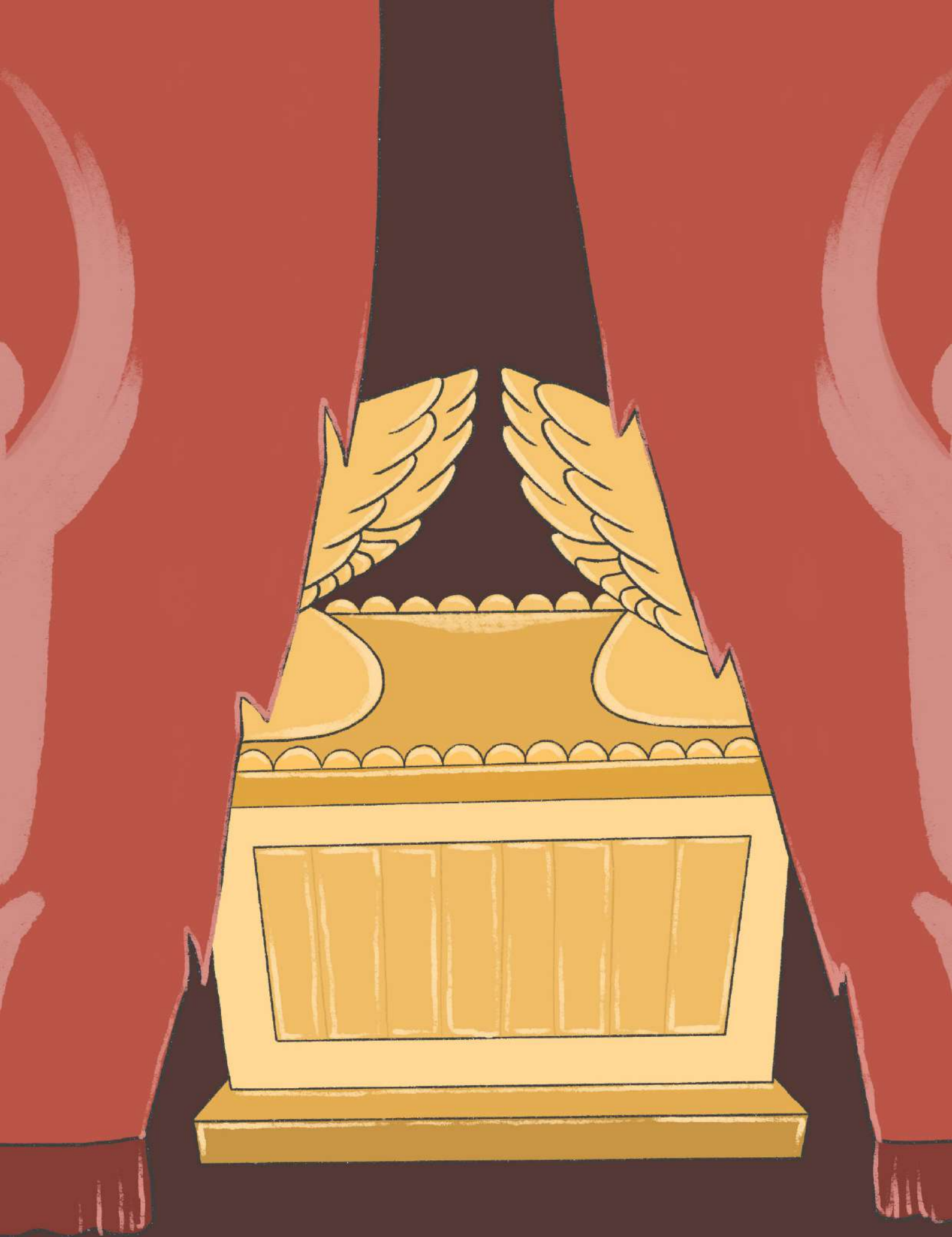
5.“내가 목마르다.”

6.“다 이루었다.”

7.“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고 싶어요.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9. 예수님의 부활

(마태복음 28:1-10, 마가복음 16:1-8,  
누가복음 24:1-12, 요한복음 20:1-18)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마리아, 우리 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뿌려드리자.”

“그래, 빨리 가보자. 날이 아직 깜깜해. 조심해.”

“근데 마리아야!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어떡하지?”

“정말 그러네. 우리 힘으론 돌이 굴러지지 않을 텐데 어떻게 무덤 안에 들어가지?”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을 텐데.....”

“어쨌든 서둘러 가보자.”

무덤에 도착한 여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우르르 쿵”

“어어어! 땅이 흔들려!”

큰 지진이 나더니 흰 옷 입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돌 위에 앉았어요.

“마리아! 무덤의 돌이 옮겨졌어.”

“정말? 들여다보자!”

“예수님 시체가 안 보여!”



“정말?”

“마리아 마리아! 봤어? 무덤 지키던 사람들이 얼어붙은 것 같아.”

“응.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봐. 나도 무서워.”

여자들이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말했어요.

“너희는 왜 울고 있니?”

여자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어요.

“두려워하지 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으러 온 줄 알아.”

“네. 예수님 보려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려고 갖고 왔는데..... 으흐흑!”

“향유? 살아있는 사람에게 왜 향유를.....”

“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옮겨다가 다른 곳에 두었나봐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요.

흑흑!”

“아직도 내 말뜻을 모르겠어? 살아있는 사람을 왜 무덤에 와서 찾느냐구?”

“네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봐.”



“아, 맞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 이제 생각났어요.”

“자,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누웠던 곳을 보아라.”

여자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어요.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사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천사가 얘기해줬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거래요.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대요.”

제자들은 녀이 나간 사람처럼 여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말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잘 했어요. 먼저 무덤에 도착하여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베드로!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은 보이는데 무덤 안으로는 못 들어가겠어.”

“난 들어가 볼 거야. 아,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네.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어두었는데..... 예수님의 그 세마포만 남아있어. 진짜 놀라운 일이야. 이리 들어와 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에도 두 제자는 갈릴리로 가지 않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4:7)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너희들이 두 강도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구나.

같은 시간 같은 곳에 있던 두 강도 중 한 명은 나를 욕하고 홍보아서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어. 다른 한 명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뉘우쳤지. 그리고 나에게 구원시켜 달라고 부탁했어. 나는 그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와 함께 낙원에 가도록 해주었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다보면 잘못하고 죄 지을 수 있어. 그때 그 죄를 나에게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단다.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나의 소원이야.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요 오늘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나빠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좋다고 졸졸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지금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놀려댈 수가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흥 본 강도는 또 왜 그래요? 정말 답답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한 강도는 구원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으니깐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주 많~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10. 나를 만져 보라

(누가복음 24:13-43, 마가복음 16:12-13)

예수님의 제자 중 두 명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며 말을 걸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을 걸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야?”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이 너무 슬퍼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 섰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으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글쎄, 난 아무 것도 몰라. 무슨 일이 있었어?”

“나사렛 예수의 일이에요.”

“예수가 누군데?”

“예수는 말과 일에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셨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분이 아니에요. 제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오늘이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 중의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의 죽은 몸은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왔어요.”

“우리와 함께 있던 두 명의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 확인했어요. 예수가 누워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를 만나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으이그.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잘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아! 이제부터 성경 이야기를 해줄 테니 잘 들어봐.”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었어요.

그들이 엠마오에 거의 도착했을 때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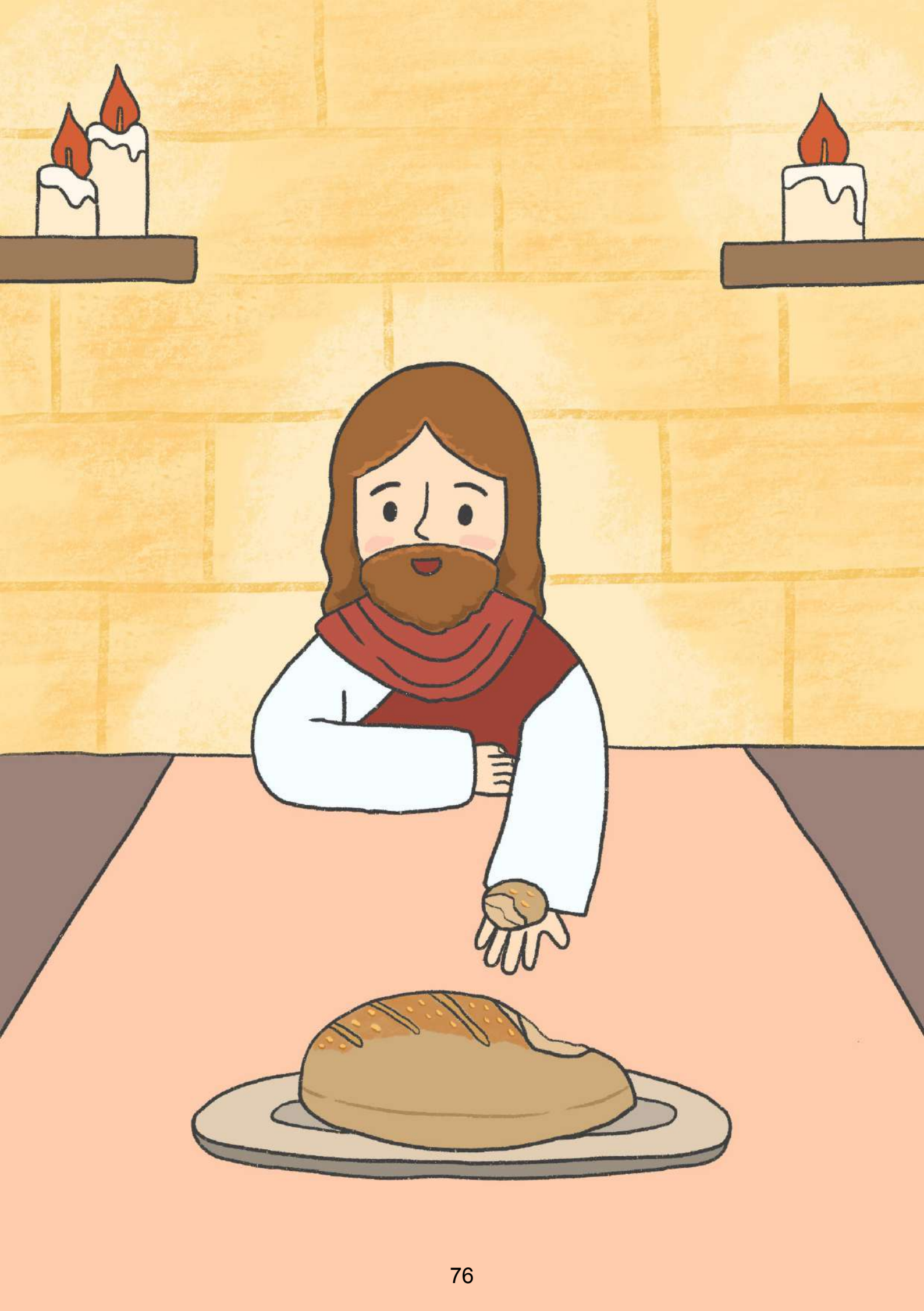
“저..... 날이 어두워지고 저녁 식사 때도 다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가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복기도를 하셨어요.

“자, 이제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순간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라지셨어요.



“어쩐지 길에서 그분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었어. 너는 그렇지 않았어?”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엔 이미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놀라며 무서워했어요.

“앗! 예수님!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영혼인가?”

“얘들아! 너희는 왜 두려워하며 의심하니?”

“예수님!”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봐. 그리고 만져봐. 내가 영혼이라면 살과 뼈가 없어. 나는 살과 뼈가 있잖니? 어서 만져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너무 기뻐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믿지 못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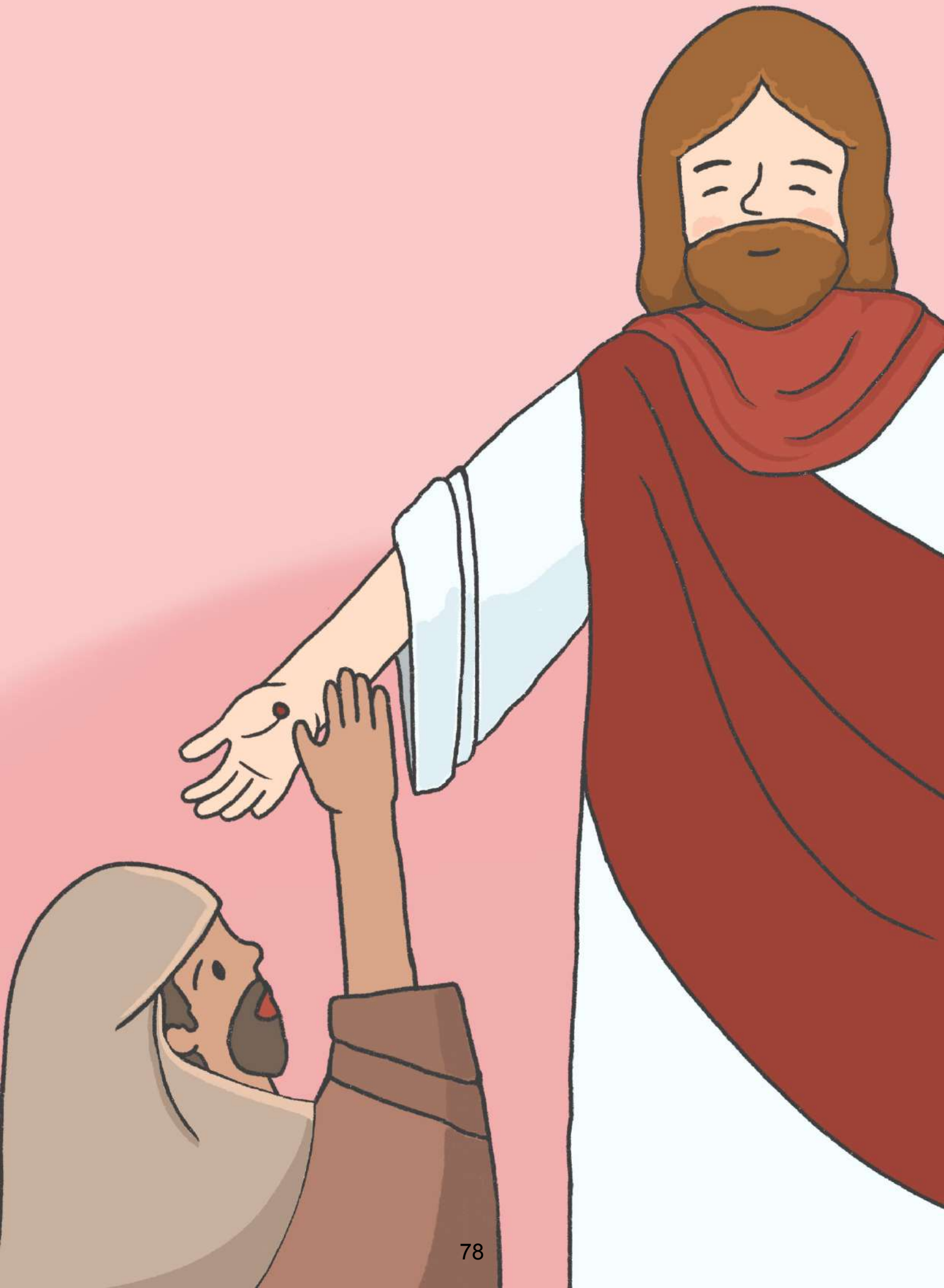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니?”

“네.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잡수심으로 살아나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39)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나의 제자 도마는 그곳에 없었어. 다른 제자들이 모두 나를 보았다고 하니까 손가락으로 내 못 자국에 넣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마에게 가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도 만져 보고 내 옆구리에도 넣어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지.

도마 뿐만 아니라 나의 제자들은 모두 내가 살아난 것을 믿지 못했어. 음식 먹는 것을 보여주고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고 확인시키는데 사실 마음이 기쁘지는 않았어.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지.....

그런데 너희들은 만져 보지 않아도, 나를 볼 수 없음에도 나를 믿으니 참으로 축복 받을 거야.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오늘은 즐거운 성경학교가 있는 날이에요.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교회에서 한 밤 자서 더 즐거워요.

예수님! 이따가 교회에서 잘 때 꿈에 찾아와서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시지 않아도 예수님 믿어요. 그치만 내 짝꿍이 꿈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너무 부러웠거든요. 예수님이 엄마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안아주셨다고 했어요.

오늘 밤 꿈에 꼭 나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11. 베드로의 고백

(요한복음 21:1-23)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가신 후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할일도 없고.....”

“심심하다. 그치?”

“얘들아, 난 원래 내가 하던 일 하러 갈래. 물고기 잡으러 갔다 올게.”

“베드로, 우리도 갈래. 같이 가.”

어부 출신인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에 탔어요.

“에휴!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날이 새어 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 계셨어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아니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 잡힐 거야.”

“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려!”

“자! 끌어올려보자. 와 정말 잡혔어.”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어.”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었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올래?”

“네.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래. 모두들 와서 아침밥 먹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감히 당신이 누구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침밥을 모두 먹은 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그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시몬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시몬아,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상하시네. 왜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하시지?’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같은 질문을 하시니 걱정돼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세요.”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되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15)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베드로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 그런데 로마 황제가 너무 못살게 괴롭히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가다가 나를 딱 만났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주님,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제가 갈게요.”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 베드로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는 나의 명령에 순종했어.

너희들도 어려서부터 나를 사랑하며 살면 정말 좋겠어.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세상의 어느 누가 예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 아빠도 나를 사랑하긴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영어공부 싫다고 하면 저한테 소리치고 화내고 어휴! 정말 무서워요.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이 쫄깃해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엔 놀러가자고 해서 교회가야 한다니까 한 번쯤 빠져도 된다고 했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12. 우리에게 내주신 숙제

(마태복음 28: 11-20, 마가복음 16:14-18,  
누가복음 24:44-49, 요한복음 20:19-23)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잠든 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갔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문들을 꼭꼭 잘 닫아.”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가져다가 감추었다고 알고 있어. 우리를 잡으러 올지도 몰라.”

제자들이 집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예수님! 주님이시군요.”

“예수님! 저희가 문을 모두 잠겼는데 어떻게..... 정말 주님 맞으시네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길 원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숨을 크게 내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없어질 것이야. 그러나 죄를 그대로 두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 열 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이 어찌 그리 성질이 사납고 고집이 센 것이냐?”

“네에? 저희가요?”

“내가 나의 손발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만지게 했었지?”

“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밥도 먹었지?”

“네. 주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어찌 고집이 세다고 하지 않겠어?”

“예수님! 잘못했어요. 너무 좋아 꿈같아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주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이제 나를 믿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할 것이니 잘 들어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과 만나기로 한 산으로 갔어요. 예수님을 뵈고 인사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너희는 온 세계에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저희가요? 저희는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요?”

“이대로만 전해. 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내 이름으로 전하면 너희들에게 능력이 생길 거야.”

“정말요, 예수님?”

“그렇고 말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거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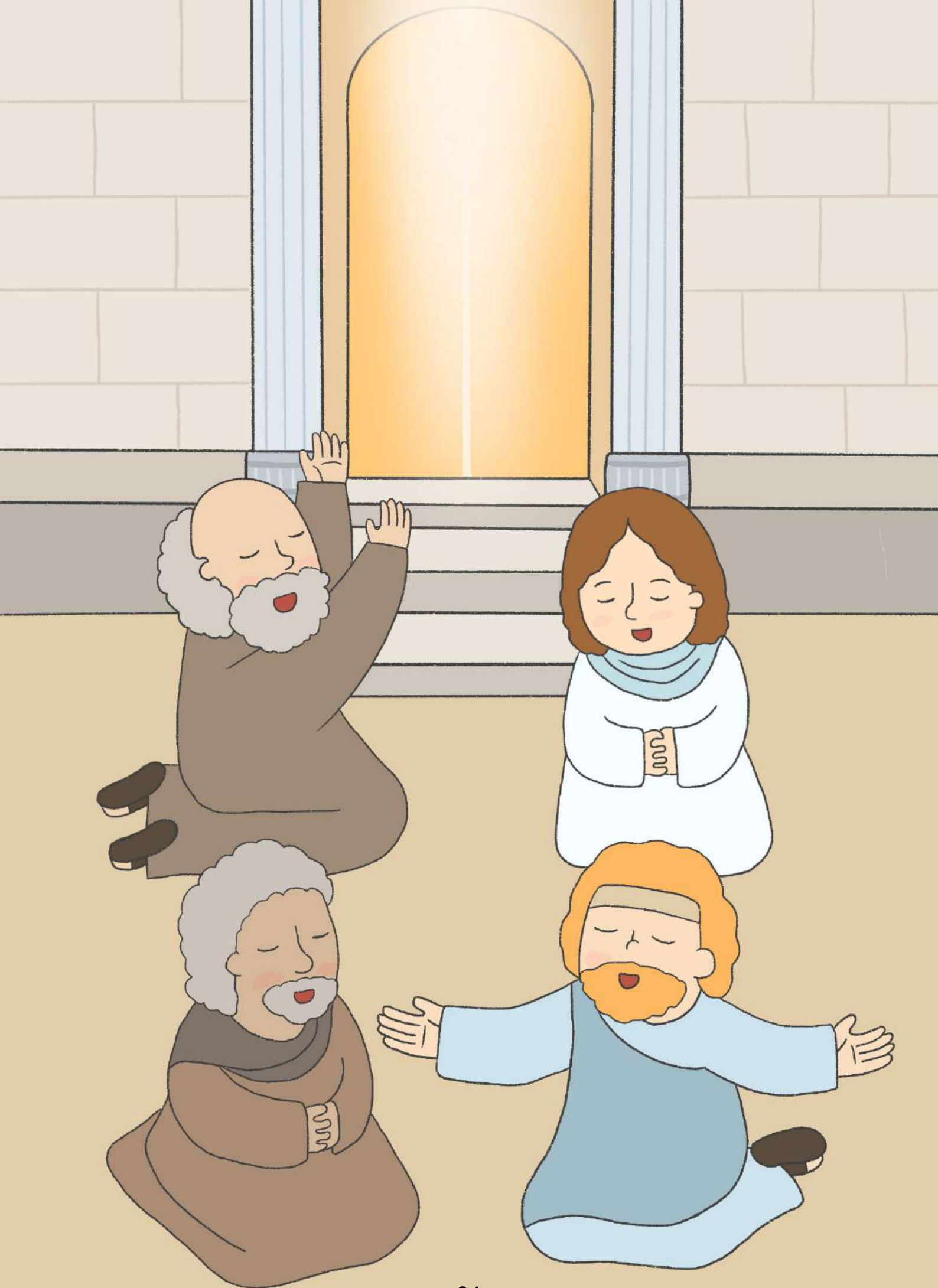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머물렀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고 자신들의 삶을 바쳤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내가 제자들에게 내 준 숙제를 너희들도 해야 돼.  
나를 믿어야하고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해. 세례는  
너희들의 신앙을 나에게 말하는 방법이거든.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말아야.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라는 멋진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 천국백성이 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을 줄 거야.

이 좋은 소식을 널리널리 전해야 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숙제야.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저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내주신 숙제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할머니한테 얘기  
했어요. 근데요. 할머니는 “아구구 이쁜 내 똥강아지.”  
이렇게 나를 이뻐하면서 예수님이 내주신 숙제를 안  
도와줘요. 할머니가 지옥에 갈까봐 너무 슬프고  
무서워요. 그래서 맨날 맨날 기도해요.

예수님, 제 기도 들어주실 거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13.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마태복음 24:3-51, 마가복음 16:19-20,  
누가복음 24:50-53, 사도행전 1:6-11)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사십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어 보았어요.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지금이에요?”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수는 없어.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이야.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예수님이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자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얘들아,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우리 곁에 서 있어.”

“응. 나도 봤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데 잘 들어보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거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 가셨는데 안보여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하셨어.”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했어요.

“세상이 끝나갈 때의 징조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라며 너희들을 홀려 정신을 못 차리게 할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굶어 죽고 전염병과 지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야. 이 천국 복음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도 말씀해주셨어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 보일 텐데 땅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 내어 울 것이며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 밤에 둘이 한 침대에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제자들은 버림받는 사람이 될까 두려웠어요.

“예수님,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해. 어느 날이 그 날이 될지 아무도 몰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내가 올 수 있으니 준비하고 깨어 있도록 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모두 모여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버려지지 않도록 예수님 믿으세요. 깨어 준비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11)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내가 언제 다시 너희들을 만나러 갈지는 아무도 몰라. 오직 하나님아버지만 그 때를 알지. 다만 내가 세상에 다시 갈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지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알 수는 있어.

가짜 예수가 많아지고 전쟁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지진, 화산 폭발, 가뭄, 홍수, 굶주림, 동성애 등등 모두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징조야.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를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자. 그래서 천국에서 꼭 만나자.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 듣고 상상해보았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엄마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나는 침대에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엄마와 나는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아빠는 침대에 그대로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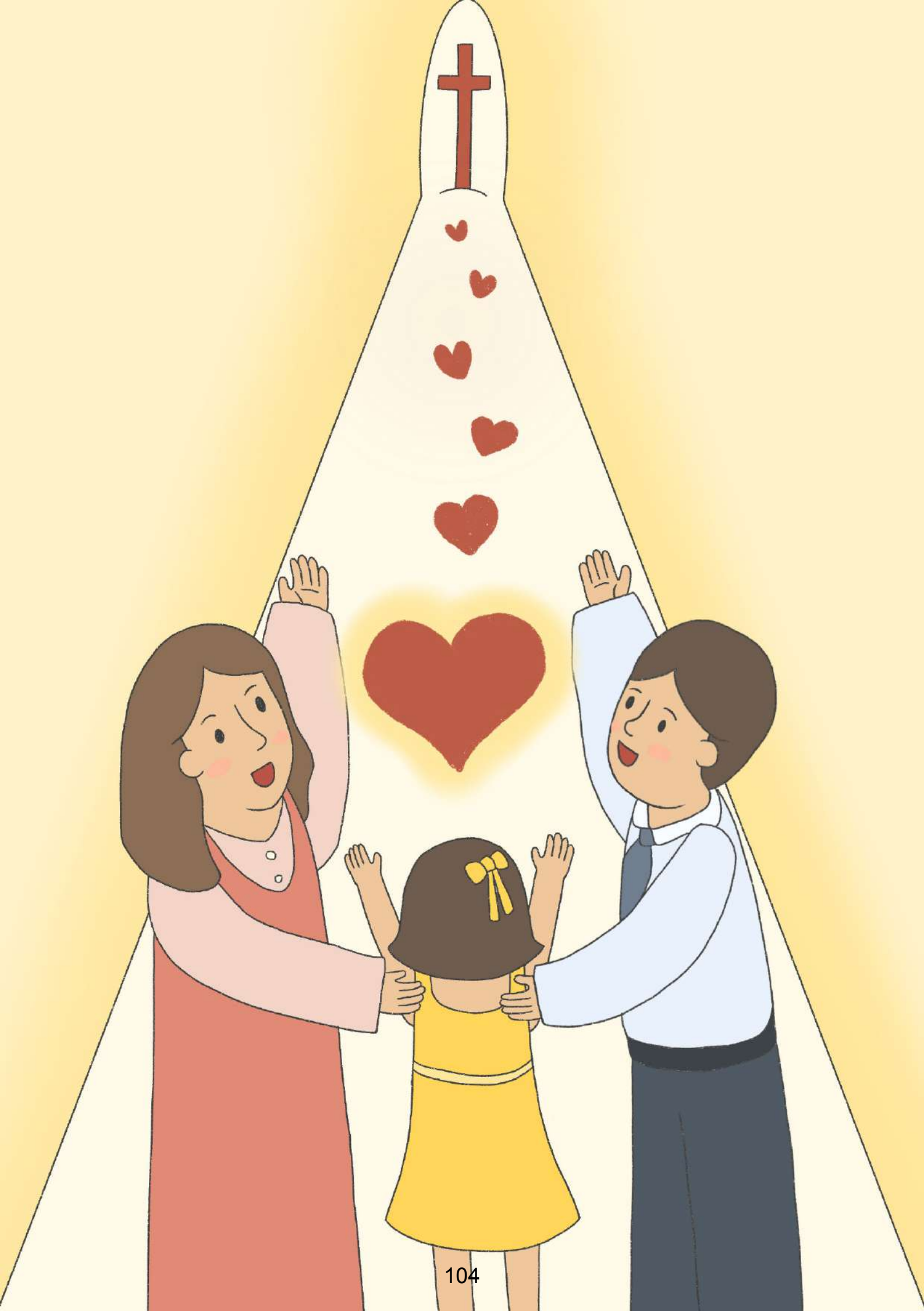
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슬퍼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모두 예수님 잘 믿고 다함께 천국 가야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교회 갈래요.

예수님, 아빠가 돈 조금 벌어도 좋으니까 일요일에 회사 가지 말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14. 못 걷는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3:1-10)

오후 세 시 기도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성전의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 도와달라는데?”

“저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 앉을 수는 있는데 서지도 걸지도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메고 와서 저 자리에 앉혀 놓는가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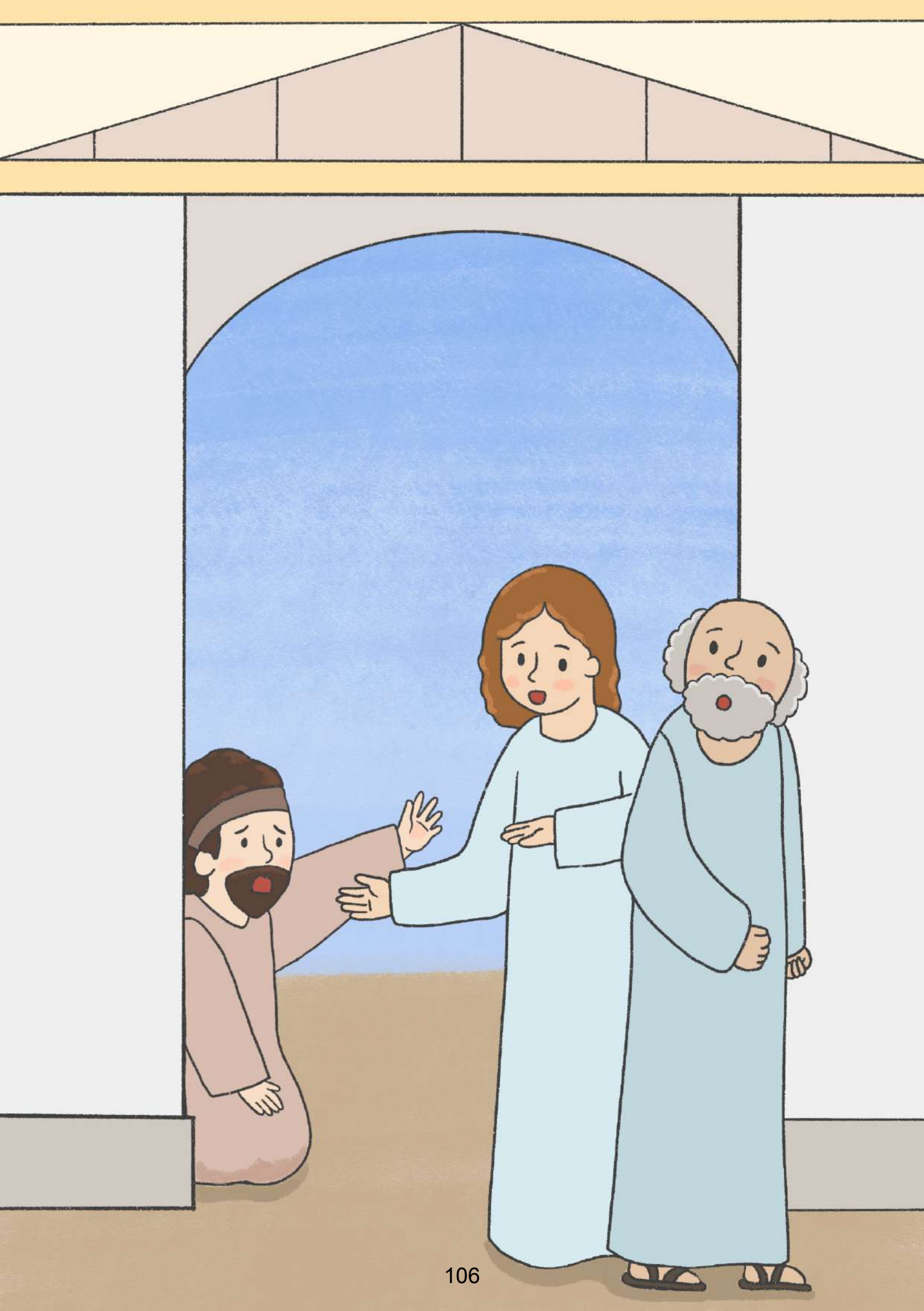
“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문이잖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지. 그래서 이곳에 데려다놓았나?”

“우리가 이곳을 많이 지나다녔는데 그동안 왜 못 봤지?”

“베드로 자네 말이 맞아. 나도 못 본 것 같아.”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에 들어가려고 하자 그 사람은 더 크게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 있게 그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우리를 보거라.”

“네. 저를 도와주세요.”

그 사람은 기대에 찬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에게 은이나 금은 없다.”

“그럼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네. 감사합니다. 어서 주세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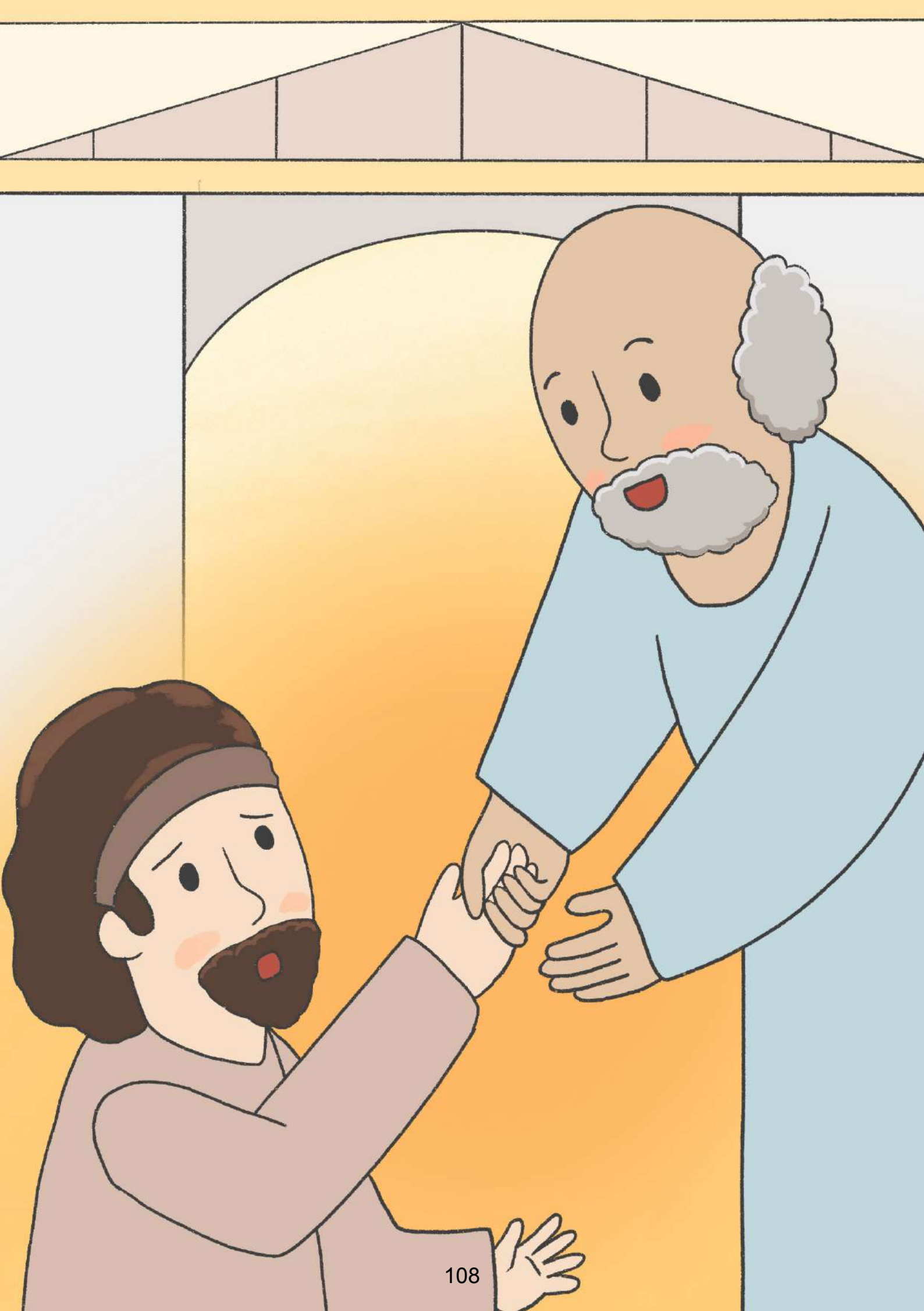
‘은과 금이 아니면 무엇일까? 무슨 좋은 것을 줄 것 같긴 한데 그게 뭘까? 궁금하네!’

베드로가 크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에이 무슨 말씀을! 저는요. 이제까지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자,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봐!”

“어어어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무릎이 펴졌어요.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것 보세요. 저요. 뚝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저 좀 보세요. 제가 걸을 수도 있고 뚝 수도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다니는 그 사람을 보았어요.

“아니, 저 사람은 걷지 못해서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맞아 맞아. 날 때부터 못 걸던 사람인데 어찌 된 일이지?”

“이 사람아! 도대체 누가 자네를 고쳐주었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쳐주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려들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같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6)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나의 제자들이 참 자랑스러워. 내 말에 순종하여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성령을 받았어. 나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보여주는 모습이 참 대견했어.

나를 잘 믿지 못하고 그렇게 내 속을 태우더니 이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니. ㅎㅎ

너희들도 나의 제자란다. 그러니 나의 제자답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전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많이 아파서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엄마가 안 아프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우리 엄마 빨리 낫게 해주세요. 엄마 대신 차라리 제가 아플게요.”

그랬더니 정말 엄마는 다 낫고 나는 아팠어요. 예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감사해요.

예수님!

근데요, 이젠 이렇게 기도해도 되죠?

“예수님! 우리 엄마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15.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다

(사도행전 6:1-15,7:51-60)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이 날마다 어디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봉사할 일도 많아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불평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열 두 제자들이 모든 신도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사람들 접대하는 일로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으니 이는 옳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봉사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가득 차서 칭찬받는 사람 일곱 명을 뽑으세요. 그들을 집사라 부를 것이며 그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말에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 명을 골랐어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들이 바로 일곱 집사예요.

그 중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테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스테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스테반이 너무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해서 당해낼 수가 없어.”

“아무래도 그를 없애야겠어. 근데 어떻게 없애지?”

“우리가 사람들을 사서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게 하자.”

사람들과 장로들을 부추겨서 스테반을 의회로 끌고 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내세운 가짜 증인들이 말했어요.

“저 사람이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말했습니다.”

“뭐라 하였소?”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테반을 보았어요. 그 얼굴이 겁에 질려있거나 억울해 하는 표정이 아니라 놀랍게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물었어요.

“이 말이 사실이냐?”

“목이 뻗뻗하고 마음과 귀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구나. 너희는 예수를 잡아 넘기고 죽이기까지 한 살인자이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러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성 밖으로 내쳐라! 그를 돌로 치자.”  
“퍽! 퍽!”

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날아들었어요.

“아아! .....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외친 후 숨을 거두었어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으음!”

일곱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은 최초로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집사가 되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60)





## 사랑하는 나의 아들 스테반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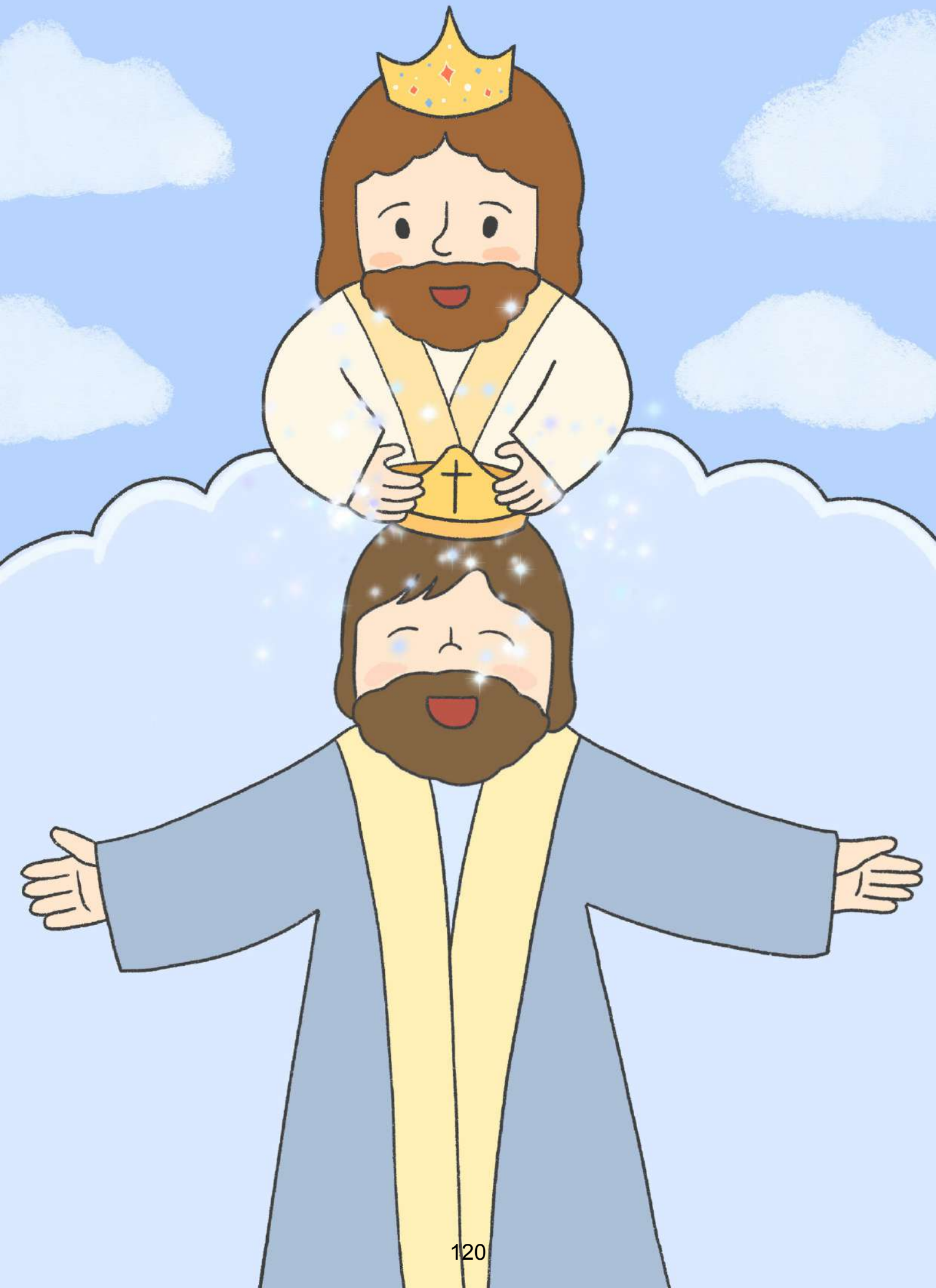
스테반.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랑하는 나의 아들  
스테반. 면류관이라는 뜻의 이름 스테반! 너의 이름처럼  
너는 의의 면류관을 썼구나. 교회의 많은 일들을 먼저  
하고 부모 없는 고아들과 남편 없는 과부들을 네  
가족처럼 보살피며 섬기던 나의 아들! 작은 일에 온  
맘을 다해 섬기더니 교회의 집사가 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내 곁으로 오게 되었구나.  
참 잘하였다, 아들이!  
나의 아들 정말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오늘 스테반의 말씀을 읽고 놀랐어요.  
돌을 맞고 죽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며 숨을 거두다니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해서 친구들하고도 잘 싸우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물음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16. 사울이 바울 되니

(사도행전 9:1-19)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기세가 무서울만큼 높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눈에 독이 올라있었어요.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는 자리에도 사울이 있었어요.

그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이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나는 네가 못살게 구는 예수다.”

“네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때 일어난 일은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어요.

“너희들 뭐 본 거 있어?”

“아니, 아무 것도 못 봤어. 근데 사울은 왜 저래?”

“모르겠어. 갑자기 앞을 못 보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으나 앞을 볼 수 없었어요.

“누가 있어? 내 눈이 보이질 않아. 눈은 뺐는데 밤 같이 캄캄해.

왜 이러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사울! 여기 우리 있어요. 왜 그래요?”

“나를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데려다 줘.”

사울은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볼 수도 없었고 먹지도 못했어요.

그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아나니아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 유다의 집을 찾아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

“사울이요?”

“응. 그를 찾아가. 그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네, 주님. 그런데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제게 해 준 말이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나쁜 짓을 했대요.”

“아나니아! 내 말대로만 하면 돼.”

“네..... 그가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외국 사람들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사람이야.”

“네, 주님! 지금 가겠습니다.”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앞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내가 그것을 사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에서 사울을 찾았어요.

“사울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기 위해 오신 분이죠?”

“그래, 맞아. 내가 너에게 안수하겠다. 네가 이곳에 오는 길에 만난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어.”

“네네. 어서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너를 택했다고 하셨어. 너에게 안수하여 너의 눈을 볼 수 있게 하라고 하셨지. 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셨어.”

“네. 감사합니다. 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이제 잘 보여요.”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유대 이름인 사울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나라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다 로마에서 옥에 갇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사도행전 9:31)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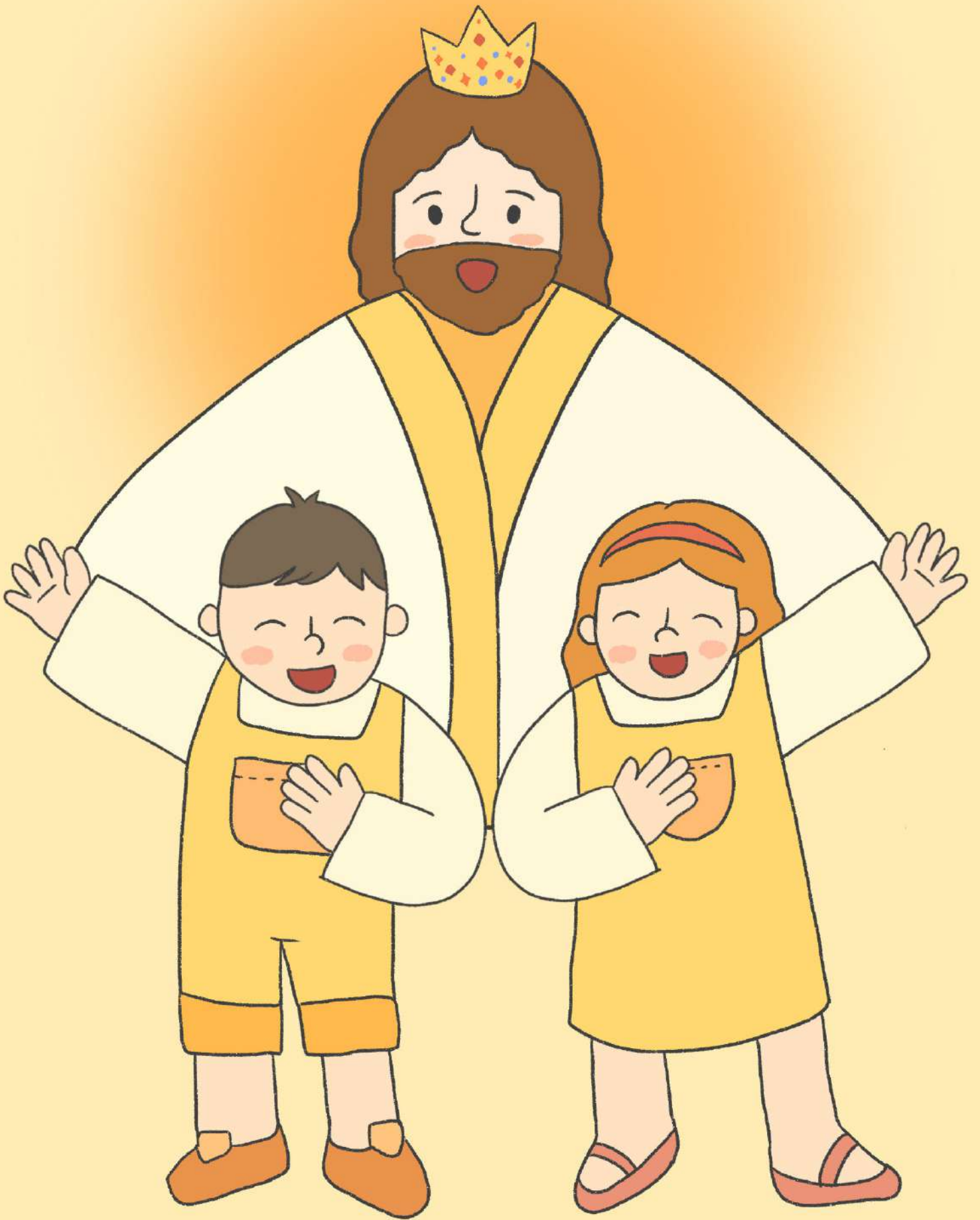
사울은 나의 열 두 제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악하기로 그 이름이 다 알려져 있었어. 그러나 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그 열정을 나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택했어.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을 우리와 함께 일하게 하세요?"라고 제자들이 분명히 항의할거야.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사울에게 안수하게 했지. 아나니아는 모두가 인정하는 나의 제자여서 그의 말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다 믿을 테니까.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너희들도 바울처럼 크게 사용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변화되어서 너무 멋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며 목숨까지 바치는 바울로 짱~ 변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나쁜 사람들도 그렇게 바꾸어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말래요.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구요. 어른이 말 걸어와도 대답하지 말래요. 자꾸만 그러니까 괜히 더 무서워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면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 지금 제 옆에 계시죠? 내 손 꼭 잡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17. 요한이 천국을 보다

(요한계시록 20:11-15, 21:9-27, 22:1-7)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환상을 보았어요.

마지막 심판과 천국에 대한 환상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야.”

“네, 예수님.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나요?”

“사람들이 서 있는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있고 또 다른 책이 있지? 생명책이라는 거야.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

“아~. 그럼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지. 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의 이름과 행위만 기록되어 있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주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 없이 고통을 받을 거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그들은 천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거야.”

“네, 예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도록 주님을 잘 믿어야겠어요.”

“그렇지, 사랑하는 나의 요한아!”

“예수님! 빨리 천국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저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살아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무어라 하느냐?”

“그곳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대요. 아픈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대요.”

“자, 아름다운 천국 거룩한 성을 잘 보아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성의 빛이 보석 같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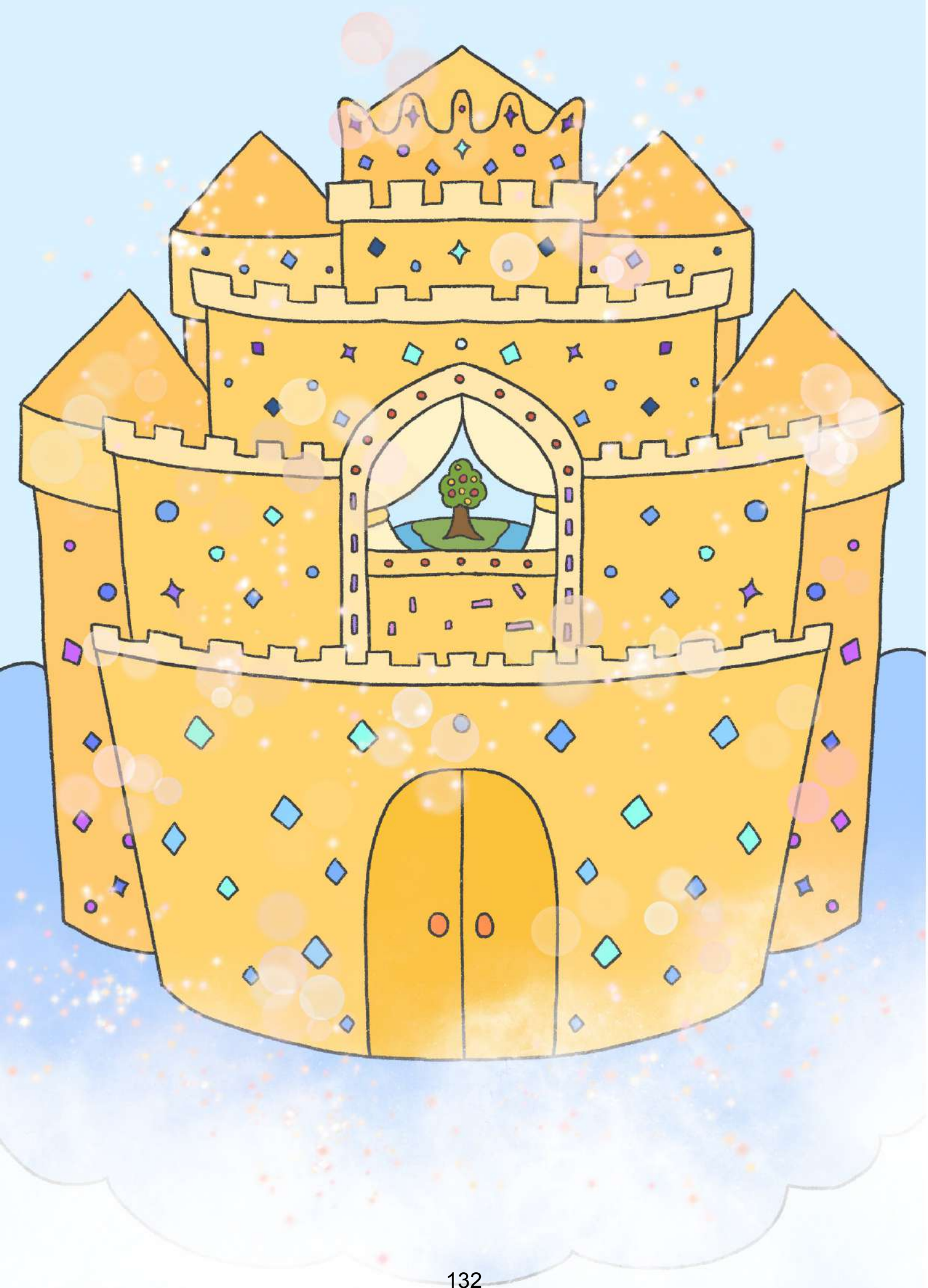
“예수님! 성의 빛이 너무 귀한 보석 같아요. 푸른 옥과 수정같이 맑은 빛이에요. 우와! 정말 눈부셔요.”

“성과 성곽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천천히 둘러봐.”

“네. 예수님! 성이 전부 금으로 되어있는데 맑은 유리 같아요.

성곽은 푸른 옥으로 쌓여있는데 바탕이 각종 색깔의 보석들로 꾸며져 있어요. 푸른 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에 자수정까지 열두 가지 보석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와우! 예수님!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어디에 두어야할지 모르겠어요. 열두 문은 모두 진주로 되어있어요. 길은 전부 맑은 유리 같은 황금이에요.”



“어? 그런데 예수님!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응. 성전이 따로 없지.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인 내가 성전이야. 이곳엔 낮에 성문들을 닫지 않고 밤도 없어.”

“아~ 네. 예수님.”

“이곳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

예수님은 요한을 데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요한!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아라.”

“네. 예수님!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어요.”

“음. 그리고 또 무엇이 보이니?”

“강 왼쪽과 오른쪽에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생명나무란다.”

“우와! 한 나무에 열두 가지 열매를 맺고 있어요. 매달 열매를 맺어서 계속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모든 나라를 치료하기 위해 있는 거란다.”

“네, 예수님!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고 놀라워요.”

“요한! 네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 내가 곧 올 것이라고.”

“네. 예수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잘 전할게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7)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요한이 본 천국 이야기 잘 들었어?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너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모두 천국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요한처럼 모두에게 전해줘.

“예수님이 곧 오세요. 모두들 예수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불에 던져질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모두 내가 다시 올 것을 믿고 천국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야해.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요. 천국 이야기 들었어요.

친구 엄마가 엄청 아팠는데 꿈속에서 천국 갔다 왔대요. 천국에는 찬양이 크게 울려 퍼지고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그곳에 있고 싶었는데 아직은 올 때가 아니라고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일어나보니 꿈이었고 아픈 것이 다 나았다고 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는데 친구는 거짓말 같은 거 하지 않는 착한 친구라서 믿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할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질 수 있도록.

예수님!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 성경 이야기 3